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분석 -KCI 등재 논문 1,071편을 중심으로(2001~2026년)-

남은영
(인하대학교)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 2.1.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분석 선행연구
 -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 3.1. 분석 대상의 선정
 - 3.2. 분석 절차 및 신뢰도
 - 3.3. 분류 범주 체계
4. 연구 결과
 - 4.1. 연도별·시기별 양적 추이
 - 4.2. 주제 범주별 분포 및 시기별 변화
 - 4.3. 연구 방법론 분포 및 변화
5. 논의 및 결론
 - 5.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5.2. 연구 공백 및 향후 과제
 - 5.3. 결론 및 제언

Ⅰ 국문초록

본 연구는 KCI에서 수집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 논문 1,071편을 분석하여 2001~2026년의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분석 대상은 논문 제목 또는 주제어에 ‘외국인 유학생’ 또는 ‘외국인 학부생’이 포함된 논문으로 한정하였으며, 주제 범주·시기별 변화·연구 방법론의 3축으로 분석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Cohen's $\kappa=0.82(p<.001)$ 로 확보하였고, 분석 시기는 제0기(~2009)부터 제4기(2023~2026)까지 5개 시기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연구는 지속 증가하여 2025년 137편으로 분석 기간 내 연간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제4기가 전체의 38.1%를 차지하였다. 둘째, 한국어 교육(36.9%)이 최대 범주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제도·법(제1기 8.2%→제4기 12.5%), 취업·진로(제1기 1.0%→제4기 5.1%), AI·디지털 기반 교육(제1기 0%→제4기 4.7%) 관련 연구가 급증하며 주제 다원화가 확인되었다. 셋째, 양적 연구(86.4%)가 우세하나 질적 연구 비중이 제1기 4.1%에서 제4기 12.7%로 증가하였다. 쓰기 교육 편중, 종단 연구 부재, 혼합 연구 미흡 등의 구조적 공백을 도출하고 향후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분석, 주제 범주, 연구 방법론, 시기별 변화

1. 서론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5년 8월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정부가 「Study Korea 300K Project」(2023)에서 설정한 목표 시점(2027년)보다 2년 가까이 앞당겨 달성된 것이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져 2026년 2월에는 31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불과 10년 전인 2015년(9만 6천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유학생 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졸업 후 취업과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¹⁾ <표 1>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와 KCI 등재 관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5년 12월호 및 2026년 2월호.

런 논문 수의 연도별 변화를 함께 보여 준다. 두 지표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증가하는 양상은 유학생의 양적 팽창이 학문적 관심을 직접적으로 전인해 왔음을 시사한다.

〈표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및 KCI 관련 논문 수 변화 추이(2015~2026)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유학생 수 (만 명)	9.6	11.6	13.5	16.1	18.0	15.3	16.4	19.7	22.7	26.4	30.9	31.4+
KCI 논문 수	26	36	46	79	84	78	106	88	98	111	137	62편

*2026년 유학생 수는 2월 기준(31.4만 명), KCI 논문 수는 5월까지 수집 기준(62편).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및 KOSIS 국가통계포털(각 연도), KCI 검색 결과(저자 산출)

외국인 유학생의 급격한 증가는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 전환을 반영한다. 초기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진 자발적 학습자 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202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공동화 위기, 첨단산업 인재 부족, 지역소멸 방지라는 복합적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으로 유학생 유치가 국가 정책의 중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유학생의 출신국도 중국, 베트남 중심에서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권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 유학생도 전년 대비 26.1% 증가하는 등 지역 분산 추세도 뚜렷하다.²⁾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 출신국, 지역 분포가 모두 급변하는 이 시점에서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연구의 양적 팽창이 최근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1,071편 중 38.1%에 해당하는 408편이 최근 4년 이내(2023~2026년)에 발표된 것으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일수록 전체

2) 연합뉴스. 외국인 유학생 21% 늘어 25만명...이공계↑·수도권 쏠림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065200530\(검색일: 2026.05.30\)](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065200530(검색일: 2026.05.30))

지형을 조망하는 메타 수준의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사회적 맥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COVID-19 팬데믹(2020), 생성형 AI의 교육 현장 도입(2023), 인구절벽 위기 대응 정책 전환(2023)이라는 세 변곡점이 연구 주제와 방법론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 연구 공백의 구조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1,071편이라는 방대한 코퍼스를 기반으로 어떤 주제로 다양하게 연구되었고, 부재한 연구 주제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은 향후 연구 의제 설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이해영·박수정(2018)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의 연구를 분석하였고, 이선미·김영순(2021)은 질적 연구에 한정된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문희진·김영순(2022)은 문화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만을 대상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선영(2026)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 분야 연구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시기적 한계, 범위의 협소성, 종단적 시각의 부재라는 세 가지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KCI 등재 논문 1,071편을 대상으로 2001~2026년의 연구를 주제, 시기, 방법론의 세 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1~2026년 외국인 유학생을 주제로 한 연구의 연도별·시기별 양적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연구 주제는 어떠한 범주로 분류되며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연구 방법론의 분포와 시기별 변화는 어떠한가?

2. 선행연구 검토

2.1.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분석 선행연구

외국인 유학생 주제로 연구 동향 분석을 수행한 주요 선행연구들은 <표

2)와 같다. 이해영·박수정(2018)은 2007~2016년간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를 분석하여 학업 적응, 언어·문화 교육, 사회적 지지 등의 범주로 분류하고 연구 주제와 방법론의 분포를 제시한 선구적 연구이다.

〈표 2〉 동향 분석 선행연구와 본 연구 비교

연구자(연도)	분석 범위	분석 방법	주요 한계
이혜영·박수정(2018)	2007~2016년 전반	빈도 분석	2017년 이후 미포함
이선미·김영순(2021)	질적 연구	동향 분석	연구 유형 한정
문희진·김영순(2022)	문화적응 연구	동향 분석	주제 범위 협소
이선영(2026)	교양교육 분야	키워드 네트워크	교양교육에 한정

그러나 2017년 이후의 급격한 연구 증가와 주제 다변화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시기적 한계가 있다. 이선미·김영순(2021)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생활 경험을 다룬 질적 연구에 한정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의 주제·방법·참여자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양적 연구와 문헌 분석 등을 포함하지 않아 전체 연구 지형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문희진·김영순(2022)은 문화적응 연구만을 대상으로 동향을 살폈으며, 이선영(2026)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 분야의 연구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으로 시각화하였다. 이들 연구는 각각의 영역에서 의의를 지니나, 외국인 유학생 연구 전반의 지형을 조망하기에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2.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연구 맥락과 목적에 따라 특정 시기, 주제, 또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중요한 부분적 지형을 밝혀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삼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의 범위와 시각을 확장한다.

첫째, 분석 기간을 2001년부터 2026년까지의 장기 시계열로 설정함으로써 COVID-19 팬데믹(2020), 생성형 AI의 교육 현장 도입(2023),

인구절벽 위기 대응 정책 전환(2023) 등 최근의 주요 변곡점을 포괄한다. 둘째, 분석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 전반으로 확장하여 KCI 등재 논문 1,071편을 기반으로 연구 지형의 전체상을 조망한다. 셋째, 주제·시기·방법론의 3축 종단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개별적 성과를 통합·확장하는 메타 연구로서, 외국인 유학생 연구 공동체에 연구 지형과 향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의 선정

3.1.1. 검색어 설정과 타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KCI에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학부생’의 두 검색어로 수집하였다. 검색 조건은 논문 제목 또는 주제어(키워드)에 해당 용어가 포함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검색은 2026년 5월에 KCI 홈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 결과를 페이지당 50건씩 확인하며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명시한 논문만을 수집하는 엄밀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검색어 설정의 타당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상 D-2(유학), D-4(어학연수) 비자 소지자를 포괄하는 행정·학문적 표준 용어이다. 둘째, ‘외국인 학부생’은 학부 과정 재학생을 특정하는 표현으로,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주 검색어로는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 일부 논문을 보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학부생에 한정하지 않으며, 대학원생 및 어학 연수생을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검색어 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함께 사용되는 ‘국제학생’, ‘해외 유학생’, ‘외국인 학습자’ 등의 용어를 사용한 논문 일부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5.3절의 연구 한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였다.

3.1.2. 포함·제외 기준 및 경계 사례 처리

수집된 논문에 포함 및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1,071편을 확정하였다. 기준은 아래 <표 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중국인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 등 특정 출신국 유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제목이나 주제어에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베트남 유학생의 학업 성취’ 등과 같이 특정 국적이 명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 3>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 기준

구분	내용
검색 DB	KCI(한국연구재단)
검색어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학부생’ (논문 제목 또는 주제어 포함 조건)
수집 기간	2001~2026년 5월 (전 기간)
포함 기준	KCI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제외 기준	① PISA·TIMSS 등 국제학력평가 관련 논문 ② 내국인·일반 대학생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한 논문 ③ 근대 문학·역사·고전 연구 등 외국인 유학생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논문 ④ 중국인·베트남 유학생 등 특정 출신국 유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명시한 논문
경계 사례 처리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의 비교 연구는 포함, 특정 국적(1개 국가)만 명시한 경우는 제외
최종 분석 대상	1,071편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의 비교’처럼 특정 국적 유학생이 비교 집단의 하나로 포함된 경우는 연구의 주된 대상이 외국인 유학생 전반임을 전제하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특정 출신국 한정 연구를 제외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 전체’라는 집합적 범주에

서 나타나는 공통적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적 선택이며, 실제 유학생 연구의 상당수가 특정 출신국(중국, 베트남, 몽골 등)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외가 전체 연구 생태계의 실질적 규모나 대표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3.2. 분석 절차 및 신뢰도

분석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KCI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목록 수집, 2단계는 포함·제외 기준 적용 및 최종 목록 확정이다. 3단계에서는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3축(주제 범주·시기·연구 방법) 코딩을 실시하였다. 4단계는 빈도 분석 및 시기별 교차 분석, 5단계는 꺾은선 그래프·누적 막대 그래프·도넛 차트로의 시각화이다.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을 위해 전체 1,071편 중 무작위 표본 100편(약 9.3%)을 추출하여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1차 코딩 일치율은 83.0%이었으며, Cohen's $\kappa=.82(p<.001)$ 로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Landis & Koch 1977). 연구자 간 불일치 의견이 나온 15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원문을 재검토하며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최초 신뢰도 검증(100편)에 사용된 코더별 개별 판정 기록은 결과 요약 형태로만 보관되어, 세부 교차표를 소급 재구성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보완적 검증으로, 전체 코퍼스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3편에 대해 사후 재코딩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후 재코딩 검증 결과(무작위 표본 23편)

구분	내용
표본 크기	23편
일치 편수	20편
불일치 편수	3편
관찰일치율	87.0%
기대일치율	19.8%
Cohen's K	.84
원 연구 신뢰도(참고)	일치율 83.0%, K=.82

관찰일치율 87.0%, $\kappa=.84$ 로 원 연구의 신뢰도 수준(83.0%, $\kappa=.82$)과 유사하게 재현되었으며, 불일치 사례(3편)는 특정 범주에 편중되지 않고 상이한 범주 간에 고르게 분산되어 나타나, 범주 쏠림에 따른 신뢰도 왜곡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분류 범주 체계

분석은 주제 범주, 시기 구분, 연구 방법의 3축 체계로 이루어지며, 각 축의 조작적 정의는 <표 5>와 같다. 시기 구분은 단순한 연대기적 구분이 아니라 연구 환경의 실질적 변화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제2기와 제3기, 제3기와 제4기의 경계는 각각 COVID-19 팬데믹 시작(2020)과 생성형 AI의 교육 현장 도입 및 「Study Korea 300K」 정책 발표(2023)를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 분류에서는 ‘혼합 연구’를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혼합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고 밝힌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설문 조사에 소수 면담을 부가한 경우는 주된 방법이 양적 연구이면 양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다만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코딩의 명료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논문에서 명시적으로 혼합 연구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양적·질적 자료를 함께 활용한 다방법 연구를 과소 집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제1기와 제2기는 5년 단위 등간격으로, 제0기는 그 이전 전체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표 1>에서 확인되는 유학생 수 및 관련 논문 수의 완만한 증가 추이와도 대체로 부합하며,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한 논문 발행의 급격한 성장(4.1.1절 참조)은 제1기와 제2기를 구분하는 실질적 근거가 된다. 주제가 중첩되는 논문(예: AI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의 경우, 논문 제목과 초록에 명시된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상 가장 핵심적인 초점을 우선 기준으로 삼아 단일 범주로 분류하였다. 다만 이러한 단일 분류 방식은 코딩의 일관성과 명료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중 주제를 다루는 논문의 복합적 성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1차·2차 주제를 함께 부여하는 다중 코딩 방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⑨ 연구 동향 분석’은 외국인 유학생 연구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메타 수준의 동향분석 논문에 한정하였다. 특정 주제(예: 문화적응, 질적 연구방법론)에 국한된 동향분석 논문은 해당 주제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5〉 분류 범주 체계 및 조작적 정의

분류 기준	세부 내용	조작적 정의
주제 범주	①한국어 교육 ②문화 교육·적응 ③대학 생활 적응·지원 ④정책·제도·법 ⑤심리·상담·복지 ⑥취업·진로·창업 ⑦교육과정·수업 설계 ⑧AI·디지털 ⑨연구 동향 분석 ⑩기타	논문 제목·키워드·주제 분야를 기반으로 핵심 연구 내용의 주된 초점에 따라 분류
시기 구분	제0기(~2009): 태동기 제1기(2010~2014): 성장기 제2기(2015~2019): 확장기 제3기(2020~2022): 전환기 제4기(2023~2026): 심화기	연구 환경의 주요 변곡점(COVID-19: 2020, 생성형 AI: 2023)을 기준으로 설정
연구 방법	①양적 연구: 설문·통계 분석 ②질적 연구: 면담·사례·현상학 등 ③혼합 연구: 양적+질적 병행 명시 ④문헌·텍스트 분석: 교재·답화 분석 ⑤연구 동향·메타 분석	논문에 명시한 방법론을 우선 적용, 병용 시 지배적 방법으로 분류(혼합으로 명시된 경우만 ③으로 분류)

4. 연구 결과

4.1. 연도별·시기별 양적 추이

4.1.1. 연도별 발행 추이

분석 대상 1,071편의 연도별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성장하여 2025년

137편으로 분석 기간 내 최다 발행을 기록하였다. 2018년부터는 매년 78편 이상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와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유학생 수가 2015~2019년 사이 9.6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급증하던 시기에 관련 논문 수도 연 26편에서 84편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천적 수요가 학문적 관심을 직접 견인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4.1.2. 시기별 분포

시기별로는 제4기(2023~2026)가 408편(38.1%)으로 가장 많으며, 제2기(2015~2019) 271편(25.3%)과 제3기(2020~2022) 272편(25.4%)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잇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주제 논문 발행 추이(2001~2026)

제3기에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전환과 유학생 복지·심리 지원 문제 부각 등이 연구 생산을 견인하였다. 다만 각 시기는 기간 길이가 상이하고 제4기는 2026년 상반기까지의 미완결 자료를 포함하므로, 총량뿐 아니라 연평균 논문 수를 함께 제시한다. 연평균 기준으로 제4기(116.6편/년)가 가장 높아, 단순 총량 비교뿐만 아니라 연구 생산 속도 측면에서도 뚜렷한 가속화 추세가 확인된다. 2026년 상반기(62편)의 발행 속도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경우 연간 약 124편으

로, 2025년(137편)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생성형 AI 도입, 인구절벽 위기에 따른 정책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담론의 확산 등 복합적 요인이 새로운 연구 의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시기별 연평균 논문 수

시기	기간(년)	편수	연평균 논문 수(편/년)
제0기(~2009)	9	22	2.4
제1기(2010~2014)	5	98	19.6
제2기(2015~2019)	5	271	54.2
제3기(2020~2022)	3	272	90.7
제4기(2023~2026.6)	3.5	408	116.6
합계	-	1,0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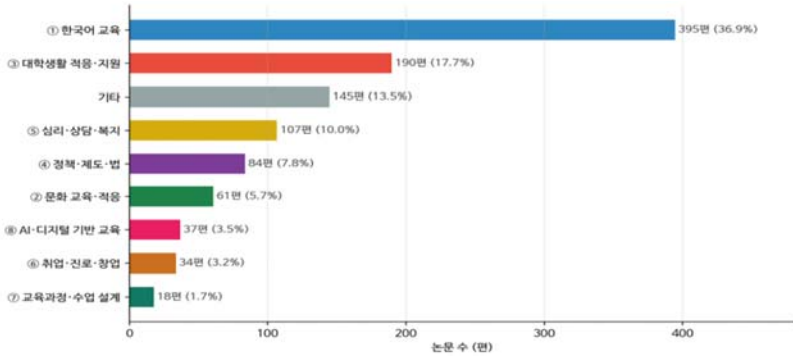
4.2. 주제 범주별 분포 및 시기별 변화

4.2.1. 전체 주제 분포

1,071편의 주제를 9개 범주와 기타로 분류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범주가 395편(36.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국어 교육(395편) 내 언어 기능별 주제 분포를 살펴보면, 쓰기 교육이 128편(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말하기·발표·토론이 49편(12.4%), 어휘·문법이 37편(9.4%)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읽기 교육은 10편(2.5%), 듣기 교육은 6편(1.5%)에 불과하여 언어 기능별 연구의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나머지 142편(35.9%)은 언어 기능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거나 학습 동기·언어 정체성 등 언어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주제를 포함한다.

기타를 제외한 세부 주제 범주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범주는 ‘대학 생활 적응·지원’(190편, 17.7%)이었으며, ‘심리·상담·복지’(107편, 10%), ‘정책·제도·법’(84편, 7.8%) 순으로 나타났다. ‘AI·디지털 기반 교육’은 37편(3.5%)으로 편수 자체는 적으나 제4기(19편)에 집중 분포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연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주제 범주별 분포(2001~2026)

기타 범주의 세부 유형과 주제어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기타’ 범주의 세부 주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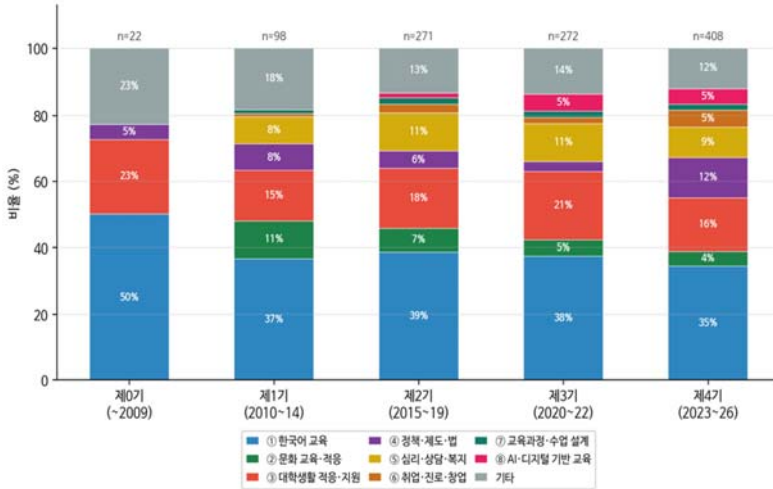
세부 유형	편수	비율	대표 주제어
관광·외식·소비	12	8.3%	식생활 적응, 교육관광, 소비 경험
다문화·국제화	17	11.7%	상호문화 역량, 다문화 인식, 세계시민교육
스포츠·체육	9	6.2%	태권도 수련, 체육 수업, 스포츠 활동
주거·안전	8	5.5%	기숙사, 주거 특성, 재난안전 정보
정보·미디어	7	4.8%	정보 리터러시, 소셜미디어, 정보 추구
건강·의료	5	3.4%	구강건강, 의료 이용, 건강행태
종교·선교	5	3.4%	역선교, 교회 적응, 유학생 선교
창업·비즈니스	1	0.7%	창업 의지, 기업가정신
학제 간 복합 연구	81	55.9%	단일 범주 분류 어려운 복합 주제
소계	145	100%	—

‘기타’범주는 145편(13.5%)을 차지하며 이러한 기타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연구가 특정 학문 분야를 벗어나 관광학, 체육학, 의료·간호학, 미디어학 등 다학제적 영역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4.2.2. 시기별 주제 변화

〈그림 3〉에서와 같이 시기별 주제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어

교육’은 제1기 37%에서 제4기 35%로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 시기에 걸쳐 최대 범주를 유지하였다.



〈그림 3〉 시기별 주제 비중의 변화(2001~2026)

이처럼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를 학업 수행과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요구받는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한국어 능력은 전공 이수의 전제 조건이자 사회·문화적 적응의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관련 연구의 지속적인 축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기별 총량 비교뿐 아니라 기간 길이를 고려한 연평균 편수를 함께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주요 부상 범주의 시기별 연평균 편수

범주	제1기(5년) 연평균	제4기(3.5년) 연평균	변화
정책·제도·법	1.6편/년	14.6편/년	약 9.1배
취업·진로·창업	0.2편/년	6.0편/년	약 30배
AI·디지털 기반 교육	0편/년	5.4편/년	신규 형성

주목할 만한 변화는 첫째, ‘정책·제도·법’은 제1기 8편(8.2%)에서 제4기 51편(12.5%)으로 6배 증가하였다. 둘째, ‘취업·진로·창업’은 제1기 1편(1.0%)에서 제4기 21편(5.1%)으로, ‘AI·디지털 기반 교육’은 제1기 0편에서 제4기 19편(4.7%)으로 각각 급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교육 수혜자’가 아닌 노동 시장의 잠재적 참여자이자 기술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연구 현장에 자리잡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김도혜 2019).

4.2.3. 제4기 부상 주제의 분석

제4기에 새롭게 두드러진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형 AI 활용 교육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Chat GPT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AI 기반 학습 피드백,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언어 학습 등이 제4기의 주요 연구 의제로 부상하였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의 노동권 및 법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유학생 취업 비자 전환 요건, 교내 근로 허용 범위 등 법적·제도적 쟁점을 다루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셋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점을 도입한 연구가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의 공존을 캠퍼스 다양성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포용적 교육 환경 설계를 다루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흐름은 유학생 연구가 개인의 적응과 교육 지원을 넘어 제도·기술·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3. 연구 방법론 분포 및 변화

4.3.1. 전체 연구 방법론 분포

〈표 9〉 연구 방법론 분포 및 시기별 변화

연구 방법	~2009	2010~14	2015~19	2020~22	2023~26	합계	비율(%)
①양적 연구	20(91%)	90(92%)	243(90%)	236(87%)	336(82%)	925	86.4
②질적 연구	2(9%)	4(4%)	18(7%)	23(8%)	52(13%)	99	9.2
③혼합 연구	0	0	0	1	3	4	0.4

연구 방법	~2009	2010~14	2015~19	2020~22	2023~26	합계	비율(%)
④문헌· 텍스트 분석	0	4(4%)	9(3%)	4(1%)	12(3%)	29	2.7
⑤연구 동향· 메타 분석	0	0	1	8(3%)	5(1%)	14	1.3
합계	22	98	271	272	408	1,071	100

1,071편의 연구 방법을 분류한 결과는 <표 9>와 같이 괄호 안의 수치는 해당 시기 전체 논문 중 비율이다. 전체적으로 ‘양적 연구’가 925편(86.4%)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였고, ‘질적 연구’99편(9.2%), ‘문헌·텍스트 분석’29편(2.7%), ‘연구 동향·메타 분석’14편(1.3%), ‘혼합 연구’4편(0.4%)의 순이었다.

4.3.2. 시기별 연구 방법론의 변화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양적 연구의 비중은 제0기 91%에서 제4기 82%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질적 연구는 제1기 4.1%에서 제4기 12.7%로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유학생의 주관적 경험과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려는 연구 경향이 강화된 데 기인한다. 질적 연구 내부에서도 방법론의 다양화가 확인된다. 초기에는 단순 인터뷰·사례 연구가 주류였으나, 제3~4기에는 현상학적 연구, 내러티브 탐구 등이 활발하게 등장하였다. 혼합 연구는 전 시기를 통틀어 4편(0.4%)에 불과하여 방법론적 통합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보여 준다. ‘⑤ 연구 동향·메타 분석’은 제3기(8편)와 제4기(5편)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 축적에 따른 메타 수준의 성찰적 분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5. 논의 및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KCI 등재 외국인 유학생 관련 논문 1,071편을 분석하여

연도별·시기별 양적 추이, 주제 범주별 분포와 시기별 변화, 연구 방법론의 분포와 변화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세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와 그 함의를 순서대로 논의한다.

첫째, 양적 추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주제로 한 연구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137편으로 분석 기간 내 연간 최다 발행을 기록하였으며, 제4기(408편, 38.1%)가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학생 수 증가와 논문 수 증가의 동반 상승 패턴은 교육 현장의 실천적 수요가 학문 생산을 견인하는 ‘수요 주도형 연구(demand-driven research)’구조를 뒷받침한다. 이해영·박수정(2018)이 지적한 ‘초기 연구 급증’패턴은 25년이 지난 현재에도 지속·심화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정책 전환과 기술 환경 변화라는 새로운 동인이 추가된 점이 주목된다.

둘째, 연구 주제의 분포와 시기별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연구의 우세는 전 시기에 걸쳐 유지되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가 전공 이수과 학업 적응의 필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학습 난이도가 높아 지속적인 교육 지원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책·제도·법(84편, 7.8%), 취업·진로(34편, 3.2%), AI·디지털 기반 교육(37편, 3.5%) 분야가 제4기에 급성장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 수혜자’에서 ‘사회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연구 현장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김도혜 2019). 2025년 8월 국내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돌파라는 수치는 이 전환의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연구 방법론의 분포와 변화와 관련하여, 양적 연구(86.4%)의 절대적 우위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유학생 연구가 실태 파악과 변수 간 관계 검증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주로 추구해 온 데 기인한다. 다만 질적 연구의 방법론적 다양화와 연구 동향·메타 분석의 부상은 학문 공동체의 성찰적 전환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영·박수정(2018)이 분석한 2007~2016년 시기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뚜렷한 변화를 보여 준다. 이해영·박수정(2018)의 분석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응이 연구의 양대 축을 이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복지와 정책·제도·법이 새로운 주요 축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가 언어·문화 차원을 넘어 복지과 제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며, Berry(1997)의 문화적응 이론이 설명하는 심리적 적응의 중요성이 연구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을 반영한다.

5.2. 연구 공백 및 향후 과제

주제 측면에서는 먼저 언어 기능별 연구의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한국어 교육(395편) 내에서 쓰기·글쓰기 교육이 집중적으로 연구된 반면, 읽기·듣기·통합 기술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머물렀다. 실제 학문 목적 학습 환경에서 언어 기능이 통합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통합 기술 기반 교육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유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학습자뿐 아니라 지원 인력의 경험과 역량에 관한 연구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기타 범주 145편(13.5%)에 관광·체육·의료 등 다학제적 연구가 분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통합·활용하는 학제 간 협력 연구가 요청된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부터 취업·정착까지의 전주기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거의 부재하며, 혼합 연구의 설계는 4편(0.4%)에 불과하다. 양적 연구의 통계적 일반화와 질적 연구의 심층적 이해를 결합한 혼합 연구 설계의 확대가 필요하며, 학습 관리 시스템(LMS) 로그 데이터나 학적 이력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연구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적극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맥락 측면에서는 연구 대상의 범위에 공백이 있다.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 간의 상호 교류 및 공동 학습 경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유학생을 지원하는 교수자·행정 담당자의 시각을 다룬 연구도 희소하다. 유학생 집단의 다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출신국·전공·성별 등 다양한 배경을 교차 분석하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5.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KCI 등재 논문 1,071편을 분석하여 2001~2026년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의 전체 지형과 시기별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주요 발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 연구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며 유학생 수 증가와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둘째, 한국어 교육 연구의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책·법제, 취업·진로, AI·디지털 기반 교육이 빠르게 부상하는 다원화 흐름이 제4기를 특징짓는다. 셋째, 양적 연구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면서도 질적 연구의 방법론적 다양화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네 가지 연구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입학부터 취업·정착까지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종단 설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전체 지형 조망을 위해 특정 출신국에 한정된 연구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토대로 출신국별 적응 경험과 교육적 요구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방법론적 균형을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확대가 현실적인 방향이며, 아울러 방법론적 정합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혼합 연구 설계의 시도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생성형 AI 시대 유학생 학습 경험 변화에 대한 실증적 탐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분석 기간에 2026년 5월까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제4기 데이터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제4기의 최종 연구 지형은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검색어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학부생’으로 한정하여, 현장에서 함께 사용되는 ‘국제학생’, ‘해외 유학생’, ‘외국인 학습자’ 등의 용어를 사용한 논문 일부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1,071편에 달하는 방대한 논문을 대상으로 주제·시기·방법론의 3축 분류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저자 소속 기관 및 지역 정보를 별도로 데이터화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자의 지역별·

기관별 분포, 즉 어느 지역·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연구가 집중적으로 생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저자 소속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후속 연구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특정 출신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유학생’이라는 집합적 수준의 동향을 조망하는 데 집중하였으나, 실제로 국내 유학생 연구의 다수가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연구 생태계의 실질적 규모를 과소대표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특정 출신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까지 포괄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주제 범주는 선행연구(이혜영·박수정 2018; 이선미·김영순 2021; 문희진·김영순 2022; 이선영 2026)를 참고하여 연구자 협의를 통해 구성하였으나, 델파이 조사와 같은 전문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검증을 통한 범주 체계의 타당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코퍼스(1,071편)의 전체 지형을 조망하는 것을 일차 목적으로 하여 기술통계 중심으로 분석을 설계하였다. 시기별·범주별 분포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등 추론통계적 검증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외국인 유학생 연구 공동체에 현재까지의 연구 지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연구 방향 설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민경(2022).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지역과 지리> 28(4), 474-488쪽.
- 교육부(2023).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교육부.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한국교육개발원.
- 김도혜(2019). 교육 수혜자에서 초국적 청년 이주자로: 해외 유학생 연구 동향을 통

- 해 본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과제와 추진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1, 39-68쪽.
- 문희진 · 김영순(2022).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언어와 문화> 18(3), 29-60쪽.
- 이선미 · 김영순(2021).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현대사회와다문화> 11(1), 25-60쪽.
- 이선영(2026).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교육 연구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35, 247-283쪽.
- 이혜영 · 박수정(2018).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2007~2016), <글로벌교육연구> 10(4), 119-145쪽.
- 이희영 · 신현석 · 김수혁(2025). 수도권 대학 외국인 유학생 전주기 경험과 종합 관리 체계 탐색, <글로벌교육연구> 17(3), 331-358쪽.
- 주월랑 · 강병현(2022).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적응과 한국어능력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1> 13(1), 231-246쪽.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26).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5년 12월호 및 2026년 2월호. 법무부.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2026). 체류자격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https://buly.kr/D3gtYSg>(검색일: 2026.07.17.)
- 연합뉴스. 외국인 유학생 21% 늘어 25만명...이공계↑ · 수도권 쏠림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5065200530>(검색일: 2026.05.30)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pp.5-34.
- Glass, C. R., & Westmont, C. M.(2014). Comparative effects of belongingness on the academic success and cross-cultural interaction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8, pp.106-119.
- Landis, J. R., & Koch, G. G.(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pp.159-174.
- Marginson, S.(2014). Student self-formation in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8(1), pp.6-22.
- Anthropic(2025). Claude Sonnet 4.6(2025.06.09.), [대형언어모델(LLM)], <https://claude.ai/> 본 논문 작성 시 데이터 분류 · 그래프 생성 보조를 위해 AI 도구를 활용하였음.

필자 소개

성 명 남은영

소 속 인하대학교 국제학부 KLC학과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인하대 미래융합대학관 3층 M-321호

전자우편 yolonam@inha.ac.kr

Abstract

Research Trends in Stud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 A Systematic Analysis of 1,071 KCI-Listed Papers (2001~2026) -

Nam, Eun-young
(Inha University)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1,071 KCI-listed paper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collected using the terms ‘international student’ or ‘international undergraduate student’ in their titles or keywords, to describe research trends from 2001 to 2026. The analysis employed a three-axis framework of thematic category, period, and methodology (Cohen’s $\kappa=.82$). Publications rose steadily, peaking at 137 in 2025, with Phase 4 (2023-2026) at 38.1% of all pap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mained the largest category (36.9%), while policy/institution/law (8.2%→12.5%), career/employment (1.0%→5.1%), and AI-based education (0%→4.7%) grew rapidly by Phase 4. Quantitative research dominated (86.4%), though qualitative research grew from 4.1% to 12.7%. Structural gaps in writing-focused research, longitudinal designs, and mixed-methods studies are identified, with future directions proposed.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research trend analysis, thematic categories, research methodology, temporal change

투고일 2026. 06. 09 / 심사일 2026. 07. 19 / 게재확정일 2026. 07. 22